

Jane Austen: 「傲慢과 偏見」小考

金 承 洙

1

Jane Austen이 *Pride and Prejudice*를 출판한 것은 1813이고 그 초고인 *First Impression*을 쓰기 시작한 것은 1796년이다. W. Wordsworth가 S. Coleridge와 *Lyrical Ballads*를 낸 것은 1798년, G. Byron의 *Childe Harold's Pilgrimage*는 1812년, W. Scott의 *Ivanho*는 1819년 그리고 대륙에서 J. Rousseau의 *Rèverie d'un Proneneur Solitaire*가 출판된 것은 1782년 이다. 그런데 Jane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를 읽으면서 위에 열거한 작품들의 경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차라리 Austen 당시의 낭만주의 작가들 보다는 시대적으로 앞선 Richardson이나 Fielding의 작품에서 더욱 많은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 한 작가가 그 당시의 경향과 전혀 상반되는 작품을 썼을 경우 당시의 독자나 비평가는 어떠한 태도로 그 작가의 작품을 평할 것인가? 같은 시대의 여류소설가인 C. Brontë는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에 대해 G. H. Lewis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다.

...Why do you like Miss Austen so very much? I am puzzled on that point. What induced you to say that you would have rather written *Pride and prejudice* or *Tom Jones*, than any of the Wavery Novels?

I had not seen *Pride and Prejudice* till I read that sentence of yours and then I got the look. And what did I find?

...No glance of a bright, vivid physiognomy, no open country, no fresh air, no blue hill, no bonybeck. I should hardly likely to live with her ladies and gentlemen, in their elegant but confined houses...¹⁾

Rochester를 사랑한 *Jane Eyre*를 그린 Brontë로서는 아마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철저한 *Pride and Prejudice*의 여 주인공에서 담담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가 자기의 작품에 대한 자만심이나 시대, 환경, 그리고 개인의 편견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나름대로 참고할 수도 용서 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단점은 다른 성격의 사람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Austen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위에서 보고 들은것, 그리고 그들과 거의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행동하게 하니 꿈이나 증세를 동경하고 피이한 취미를 사랑하며 *passion*과 *imagination*을 존중하는 그들에게는 그녀는 거의 장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Pride and Prejudice*에서 공포나 진술에서 오는 재미 혹은 찬란한 꿈이나 기대를 맞볼수 없다. 그러나 모든

1) "Letter to G.H. Lewis, Jan 12, 1848," quoted in Tudith O'neill(ed) *Critics on Jane Auste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0) p. 6-7.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우리를 주위에서 보는 현실과 너무나 떨어져 있을 때 초자연적인 요소나 형이상학적인 idea가 소개될때 그것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거나 주의를 끌수는 있어도 때때로 환상이나 몽상에 빠져 읽은 것에 대해 현실성을 잃고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

작가가 일상 생활에서 제재를 뽑아내어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건 속에서 흔히 독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배경과 평범한 인생을 걸어가는 인물들과 가까이 하여 그들의 정신이나 근본적 성질을 찾아낸다는 것은 감정이 격렬하고 변화있는 장면과 사건속에서 보다 훨씬 어렵다. Austen은 *Pride and Prejudice*에서 바로 이러한 평범속에서 비범감을 묘사 했다. 이 힘은 치밀한 dramatic presentation의 기술과 그의 진실한 dialogue의 구사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But instead of description, the common and easy resource of novelists, she has the rare and difficult art of dramatic presentation: instead of telling us what her characters are, and what they feel, she presents the people, and they reveal themselves.²⁾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평범한 부부가 딸 다섯을 데리고 안주하여 살고 있다.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딸들을 돈 많은 남자와 결혼 시키려고 노력을 하며 그것을 평생의 자기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딸은 사교성 있고, 돈이 많은 남자와, 둘째 딸은 역시 돈이 많고 개성이 강한 남자와 우여 곡절 끝에 결혼하고, 막내 사위도 부족하지만 부인의 생각으로는 훌륭한 남자이다. 셋째, 넷째도 그럴 저력 훌륭한 남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이처럼 평범하다. 기상 천외의 사건도 없고, 번뜩거리는 정열의 섬광도 없다. 오직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특이한 기술과 등장 인물의 dialogue, 그리고 humor로서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독자의 이성을 잡아끄는 것이다.

2

누구나 *Pride and Prejudice*를 한 번만 읽어 보아도 그 작품의 주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즉시 간파할 수 있다. 이처럼 장편 소설에서 단일 주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펴 드문 일이다.

우리들에게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인 Fielding, Dickens, Thackeray, Tolstoy, Dostoevsky, Joyce. 그리고 Hemingway 등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나 미움, 전쟁, 탄생, 그리고 죽음, 공포, 연애, 가난과 부귀등 주제가 복합적인 것이 보통이다. 복합적인 주제란 장편소설의 특징이며 표미라고도 할 수 있다. 수천매 이상의 긴 소설이 단 하나의 주제로 시종일관되어 있다면 어쩌면 그 작가의 상상력을 의심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소설의 이야기가 늘어져 장편 소설로서의 우수성이 반감 될 수도 있다. *Vanity Fair*에서 볼 수 있는 여러 episode나 *David Copperfield*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사건들과 흥미 있는 인물들, *The Brothers Karamazov*에 나타나는 추리성과 종교성, 그리고 죄와 보상문제, 각 인물들의 병적인 심리 상태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 않고서 어찌 그 긴 소설을 흥미롭게 읽어 나갈 수 있을까? *Pride and Prejudice*는 전기한 작품들 만큼 긴 소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plot의 전개 방법이나 등장인물들의 숫자등으로 보아 장편소설이라는 것

2) G.H. Lewes, "The Novels of Jane Austen," quoted in Donald J. Gray(ed), *Pride and Prejudice* (London: W.W. Norton & Company, Inc.) 1966. p. 327.

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주제는 단일하다. 모든 인물과 사건, 대화나 배경의 설정, 그리고 plot이 오직 몇 쌍의 결혼만을 향하여 진행되어 간다. 등장인물 거의가 결혼하려는 남녀의 부모형제 및 가까운 친척 아니면 친구이며 여행이나 발병, 무도회의 개최, 군대 주둔지역의 설정, 산책하는 장면, 그리고 각인물들의 감정, 즉 분노, 웃음, 질투 자랑, 경멸등의 대화나 모두 결혼의 완성을 위한 작가의 치밀한 배려이다. 옆길로 비키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결혼 대상이 여러 쌍이 됨으로써 자칫 평면적이고 변화가 없는, 그리하여 흥미 없는 작품이 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느낌이 없다. 그것은 Jane과 Bingley, Charlotte와 Collins, Lydia Wickham의 결혼이 Elizabeth와 Darcy의 결혼을 중심으로 곁들여 짜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품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 이미 나타나 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1-1)

작가는 이 첫 문장에서 자신이 "널리 알려진 진리"를 다루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곧 결혼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흥미 있고 관심있는 소재를 다름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끈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독자는 마음씨 착하고 재산있고 사교성 있는 Bingley와 Bennet가의 딸들 중 누군가와 결혼하리라는 것을 빈약한 상상력의 소유자로서도 곧 알아챌 수 있다. 그런데 흔히 독자가 소설에서 바라는 기대란 평범한 남녀의 평범한 관계보다는 극적인 역전이 계속되면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결혼이다.

성격이 곧은 Elizabeth와 과묵하고 인기 없고 자존심 높은, 그러면서도 돈이 많은 Darcy에게 유달리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러한 기대감 때문이다. Elizabeth가 Darcy를 처음 만난 것은 Netherfield 무도회에서인데 그녀가 Darcy로 부터 자기에 대해 들은 첫 말은 ... "She is tolerable : but not handsome enough to tempt me ; ..." (1-3)라는 모욕적인 말이 있다. 이것이 Darcy의 Elizabeth에 대한 첫 인상이고 이 말을 들은 Elizabeth는 (그에 대해서 과히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Darcy의 Bennet가문에 대한 거만한 우월감은 좀처럼 수그러지 않고 Elizabeth는 선입감에서 생긴 편견의 껍질속에 단단히 틀어 박혀 좀처럼 Darcy를 이해 하려 들지 않는다. 자만심이란 원래 청년들의 일반적인 성격 요소이며 편견은 처녀들의 보편적 단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작가는 이 두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들로 하여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원래 Elizabeth 편견은 그녀 개인적인 자만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분별력을 확고히 믿고 Bingley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Whatever I do is done in a hurry," replied he [Bingley]; and therefore if I should resolve to quit Netherfield, should probably be off in five minutes. At present, however, I consider myself as quite fixed here."

"That is exactly what I should have supposed of you?" said Elizabeth.

"You begin to comprehend me, do you?" cried he, turning toward her.

"Oh, yes—I understand you perfectly" (1-9)

한편 Darcy의 Elizabeth에 대한 자만심은 그녀의 보잘 것 없는 외가의 가계와 그녀에 대

한 자신의 부귀, 그리고 그녀가 뛰어나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거기에 Bennet 가족의 속물근성에 대한 경멸로 인하여 자신의 자만심은 더욱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빌만 아니라 Darcy는 Elizabeth에 대해 편견도 지니고 있다. Elizabeth 모체에 대한 그의 경멸의식이 Elizabeth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것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편견의 말로 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도 서로가 이해하게 되면 가장 훌륭한 부부가 될 것이며 이 노력을 우리는 *Pride and Prejudice*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Elizabeth와 Darcy에게서 보여 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는 교훈적이며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she [Jane Austen] was also a moralist. In a thin sense of the word, of course, every novelist is a moralist who shows us the ways or moves of his characters and their society. But Jane Austen was a moralist in a thick sense, that she wrote what and as she wrote pastly from a deep interest in some perfectly general, even theoretical questions about human nature and human conduct³⁾

Elizabeth는 타인의 의사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여인이며 당시의 보수적인 전통에도 반발할 수 있는 개성적인 여성이다. 19세기초 영국 여성이 속옷까지 버리면서 새벽길에 언니의 간호를 위해 3마일의 진흙 길을 걸어 남의 집까지 걸이 갔다는 사실은 이것을 능히 증명해 준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과 고집을 지니고 있었다. 도서관에 틀어 박혀 지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와 엄살과 수다만을 일삼는 속물근성의 어머니에게서 그녀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한 Elizabeth의 무관심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경멸등으로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판단의 껍질속에 박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름대로의 표준을 지니고 있고 이 표준은 누구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었다. 그녀의

"Follies and nonsense, whims and inconsistencies do divert me, in the present instance. No principle of either would be violated by my marriage with Mr. Darcy, and with regard to the resentment of his family, or the indignation of the world, if the former were excited by his marriage me, it would not give me one moment's concern and the world in general would have too much sense to join in the scorn. (III-14)

라는 말에는 그녀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편견때문에 그녀는 Darcy에 대해 결과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여 실수를 저지른다.

우선 Mr. Wickham에 대한 Mr. Darcy의 야만적인 박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편견에 의해, 판단해 버린 예를 들 수 있다. 만일 Elizabeth가 Darcy에 대해 처음부터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Wickham의 말이나 태도에 생각 이상의 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Wickham의 Darcy에 대한 모략을 어떤 그대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야만적인 박해를 한것은 Darcy 측이 아니고 오히려 Wickham이었다. 그녀는 Darcy의 implacable resentment에 대한 해석을 자기의 편파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풀이 했던 것이다. 두번째로 Darcy의 사촌 Calonel Fitzwilliam과의 긴 대화에서 나름대로 추론한

3) Gilbert Ryle, "Jane Austen and The Moralists" Critical essays on Jane Austen(ed) B.C. Soutam (R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8, p. 106.

자기의 언니 Jane와 Bingley와의 연애중 Bingley에 대한 Darcy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누이의 행복과 명랑성을 빼앗아 간것은 Darcy 입에 틀림 없었다고 단정한다.

"If his[Darcy's] vanity, however, did not mislead him [Bingley], he was the cause, his pride and caprice were the cause of all that Jane had suffered, and still continued to suffer. He had ruined for a while every hope of happiness for the most affectionate, generous heart in the world; and no one could say how lasting an evil he might have inflicted. "There were some very strong objections against the lady, "were Colonel Fitzwilliam's words, and these strong objections probably were, her having one uncle who was a country attorney, and another who was in business in London." (II-10)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혼을 한 Darcy는 단 얼마나 일방적으로 어리석은 자만심에 취해 있는 인물이며 또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Darcy의 청혼은 Elizabeth와 Darcy 자신 그리고 독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이다. 왜냐하면 Darcy의 청혼과 Elizabeth의 거절, 그리고 거기에 따른 Darcy의 편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독자에게 자만심과 편견으로 인한 결과를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Elizabeth는 Darcy의 편지를 거의 의을 수 있을 만큼 수 없이 읽고 나서 Wickham과 Darcy에 관한 과거의 행적을 회상한 뒤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n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 (II-13)

이리하여 Darcy의 제력인 Pemberly에서 그를 다시 만난후부터 그녀는 차츰 Darcy의 강력한 주장이나 의견할 판단력, 비사교적인 침묵, 그리고 오만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자기의 편견을 반성하여, 그것을 자기완성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아니라 그녀는 Darcy가 성품과 재능에 있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뒤에는 상대방을 자기의 행동의 거울로 삼아 서로를 개혁 시킨다.

We find in the novels a theory that, as love is educated by contradiction, so is love the great educator of the mind through sorrow and contradiction⁴⁾

Austen은 이러한 모든 것을 dramatic method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와 우리의 단일감은 결코 이 소설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깨달게 된다.

4) Richard Simpson, "Jane Austen," Memoir, North British Review (April, 1870), [Quoted in B.C. Southan(ed.) Jane Austen,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8, p. 263.

평범한 인물들이 벌이는 평범한 사건을 묘사 함으로서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이야기를 마술적인 기교를 사용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개시켰다고 전술했다. 그러면 *Pride and Prejudice*의 plot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Elizabeth와 Darcy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방법과 기술적인 수법, 그리고 관점을 다각적으로 생각해본다.

이 작품은 마치 drama의 막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Elizabeth와 Darcy의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Vol I은 Darcy와 Elizabeth의 등장으로 부터 이들의 전례 차이에 대한 기술, Vol II는 이 두사람의 갈등과 재회, 그리고 Darcy의 구혼과 Elizabeth의 심리적 반응, Vol III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등으로 꾸며져 있다.

*Pride and Prejudice*란 제목에 관한 선입견만 버린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처음에는 Jane과 Bingley가 주인공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Bingley는 마치 hero 처럼 Bennet 일가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신비스럽고 용감하게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가 Netherfield를 떠날때까지는 감소되지 않는다.

heroine으로서도 우리는 처음에 Jane을 더 많이 만난다. 그러나 차츰 Elizabeth에 대한 관심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Elizabeth가 관심의 초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Bingley가 살고 있는 Netherfield에서 Jane이 감기에 걸려 머무르고 있을때 우리는 이 두 남녀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는 Bingley 보다는 Darcy에게 더 흥미를 느끼고 Jane 보다는 Elizabeth를 더 많이 접촉한다. 얼핏 저지른 Bingley와 Jane에게 쫓겨감을 맞추기 위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것 같지만 실제로 독자가 Bingley 집을 방문한 것은 Elizabeth가 3마일이나 되는 진흙길을 걸어서 통과한 뒤이다, Netherfield에서도 Elizabeth가 Jane을 간호하기 위해 이층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독자는 Jane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행동도 거의 없다.

이하여 우리는 저자로 부터 차츰차츰 Elizabeth을 더 많이 보도록 유인 당하며 얼마 후에는 오직 그녀의 눈을 통해서만 Bingley와 Jane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두사람이 마주서서 이야기 하는 것을 직접 들어 볼 수 없고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 피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저자의 등장 인물에 관한 관심의 초점은 Elizabeth의 입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듯이 intricate character이지 simple character는 아니다.

"I did not now before," continued Bingley immediately, "that you were a student of character. It must be an amusing study."

"Yes, but intricate characters are the most amusing. They have at least that advantage."

"The country," said Darcy, "can in general supply but few subjects for such a study. In a country neighborhood you move in a very confined and unvarying society."

"But people themselves after so much, that there is something new to be observed in them forever." (1-9)

책 전체를 통해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요인을 지니고 있는 성격은 Elizabeth와 Dar-

cy 뿐이고 Bingley도 Jane도 Elizabeth가 이미 파악 했듯이 amusing study의 대사 인물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Bingley는 그저 젊고 유쾌하고 멋있는 청년일 뿐이다. 그는 미남이며 실사적이고 예절 있는 태도와 솔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능히 전통적인 소설의 주인공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Jane 역시 착하고 친절하며 사랑스럽다. 그녀에게 세상의 악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Wickham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믿지도 않는다. 그녀는 능히 신비렐라가 될 수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선남선녀에서 그치고 만다. 사회나 인물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단순하고 변화가 없다. 자기네들의 연애단계의 처리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Pride and Prejudice*의 이야기는 이들의 등장으로 부터 시작되어 이들의 결혼으로 끝나나 항상 Darcy와 Elizabeth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다. 처음에는 Bingley가 Darcy를 메리고 다녔으나 나중에는 Darcy의 충고에 의해 Jane을 떠나 버리고 Jane 역시 Elizabeth 협조 없이는 수수 방관하는 상태이다. 구성상 이들은 단지 Darcy와 Elizabeth를 연결해준 매개체일 뿐이며 그들이 있으므로 해서 Darcy와 Elizabeth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만이 있다.

이처럼 Austen은 Elizabeth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관찰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눈을 통하여 감정의 변화를 겪고 사건을 따라간다. 우리가 Darcy의 청혼에 대해 Elizabeth만큼 깜짝 놀라는 이유는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Elizabeth생각 속으로 끌어 들이는 수법이 능숙했기 때문이다. 즉 독자는 어쩔 수 없이 Elizabeth처럼 Darcy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Elizabeth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Elizabeth가 Netherfield 부도에서 Darcy에게서 엿들은 "She is tolerable ; but not handsome enough to tempt me."라는 말 때문에 일어난 Darcy에 대한 악감, Sir Williams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lizabeth가 냉담하게 Darcy와의 춤을 거절한 사실, Netherfield에서 Jane과 함께 머물렀을 때, Darcy로 부터 reel춤의 청에 대한 두 번째 거절, Wickham에게서 들은 Darcy에 대한 온갖 잔인한 비행등은 Elizabeth로 하여금 Darcy에 대해 풀을 수 없는 나쁜 편견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Jane과 Bingley, Elizabeth와 Wickham 또는 Collins의 사건을 삽입시킴으로서 두 남녀 주인공의 연관성을 고의로 배재하려고 노력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Darcy의 청혼에 대한 독자의 추측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재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이야기를 급전시키므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Jane과 Bingley 경우에서도 우리는 약간의 의의성을 발견한다. Vol. I, Chapter 2에서 Mrs. Bennet와 Lydia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독자는 Jane과 Bingley 보다는 Lydia와 Bingley와의 관계를 더 예상해 봄직도 했던 것이다.

"...Lydia, my love, though you are the youngest, I dare say Mr. Bingley will dance with you at the next ball."

"Oh!" said Lydia stoutly, "I am not afraid, for though I am the youngest, I am the tallest." (1-2)

Wickham 에 대한 독자의 선입견 또한 Elizabeth의 편견과 일치한다. 스스로 성격 연구가라고 자부하는 Elizabeth는 Wickham이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잔뜩 믿고 있던 중 실제로는 그가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독자들은 순진한 Jane 만큼이나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아니 된다. 애를 들어 Darcy의 청혼에대

해 수증이 될 만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Darcy의 청혼에 대한 합리성이 증명 될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나 사전 준비가 전혀 없는 갑작스런 사건의 발생은 통속소설에서나 묵인될 수 있다. Darcy의 청혼이 사건의 발전도중에 있는 한은 반드시 전에 원인이 있어야 하고 후에 결과가 따라야 한다.

“전체는 시초와 중간과 종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초는 그 자신 필연적으로 다른 것 다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음에 다른 것이 존재하거나 생성하는 성질의 것이다. 종말은 이와는 반대로 그 자신 필연적으로 혹은 대개 다른 것 다음에 온다. 그것 다음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오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중간은 그 자신 다른 것 다음에 오고, 또 그것 다음에는 다른 것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구성된 plot는 아무데서나 시작 하거나 끝나서는 안된다. 그 시초와 종말은 지금 말한 규정에 부응 하지 않으면 안된다.”⁵⁾

Darcy가 Vol. I-6에서 Elizabeth에게 춤을 청한 사실. (Mr. Darcy with grave propriety requested to be allowed the honor of her hand; ...) Elizabeth의 두 눈이 자기를 유쾌하게 해준 사실. (My mind was more agreeably engaged, I have been meditating on the very great pleasure which a fair of fine eye in the face of a petty woman can bestow. (I-6))

Netherfield에서 Mrs. Bennet와 딸들이 Jane의 병 간호차 방문하고 떠나고 난 뒤 모든 식구가 Elizabeth를 비난한다. Darcy만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Mr. Darcy) of whom, however, could not be prevailed on to join in their censure of her, in spite of all Miss Bingley's witticisms on five eyes. (I-9) Vol, I, Chapte 10에서 Darcy가 Elizabeth에게 다시 한번 reel춤을 청했다는 것과 그가 계속 Elizabeth만을 주시 한다는 사실

“Mrs. Harst sang with her sister, and while they were thus employed Elizabeth could not help observing as she turned over some music books that lay on the instrument how frequently Darcy's eyes were fixed on her. (I-10)”

또 Netherfield 응접실에서 Darcy가 자기를 좋아하는 Miss Bingley를 지나치게 냉담하나 Elizabeth의 움직임에는 주시한다는 사실과 Elizabeth가 청혼을 받기 직전 Sir Williams와 Collins를 방문했을때, Darcy를 제외한 후의 Darcy의 Elizabeth에 대한 태도는 독자가 Darcy의 의미 있는 관심을 알아 차릴 정도로 Elizabeth의 계속되는 야유와 심술궂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이고 공손하다는 사실 따위는 Darcy가 Elizabeth에게 청혼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성격연구가라고 자처하며 분별력 있고 지각 있는 Elizabeth가 Darcy의 고의적인 산책길 선택에 초차 자기에 대한 관심의 뜻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Elizabeth 편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Austen이 지나치게 믿은 결과이다. 아마 저자는 Darcy의 청혼의 의외성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Elizabeth의 관찰 부족은 Darcy가 청혼할때 애정에 관한 화제보다 자존심에 관한 것에 더 달변이며 자기의 청혼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는 Darcy의, 수많은 태도와 불손, 그녀의 거절에 분노하는 그를 생각하면, 또 Jane과 Bingley와의 애정 사건에 대한 Darcy의 비열한 간섭과 이 사건을 정당화 할 변명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의 소행은 승인하는 뻔뻔스러움등을 생각하면 독자는 Elizabeth의 관찰부족을 용서하고 싶은 것이다.

5) 아이스토펠레스, 「시학」, 손명현 역 (서울: 박영사, 1970) p. 59.

4

Jane Austen에 대한 평에 Shakespeare가 비교되는 경우가 여러번 있다. G.H.Lewes 등장 인물을 묘사 하는데 있어 Austen은 정확한 사실성과 흥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But Miss Austen is like Shakespeare ; she makes her very noodles inexhaustibly amusing, yet accurately real. We never tire of her characters. They become equal to actual experiences⁶⁾”

Thomas B. Macaulay 는⁷⁾

“Shakespeare had neither equal nor second. But among the writers who, in the point which we have noticed, have no hesitation in playing Jane Austine, a woman of whom England is justly proud.⁸⁾”

라고 하여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만물 묘사에 뛰어났다고 했고, Rachel Trickett는

“... , we may find ourselves comparing her to Shakespear and Moliere for her achievement is not really related to any period, but to an attitude of mind, a type of genius which naturally expresses itself in the ageless form of comedy⁹⁾”

라고 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Jane Austen의 성격 창조나 그의 묘사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여성다운 섬세한 필치로 과장된 정열의 묘사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에 능숙하다. 그녀에게는 싸움, 증오, 괴악 같은 것은 묘사하지 않는다. 마음속의 깊은 고민도 창조해 내지 못한다. 사실 그녀에게는 poetical faculty가 부족하다. 아마 성격 묘사와 창조에 있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이처럼 시적 상상력이 부족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Richard Simpson이나 Lewes, Macaulay에 의해 산문적인 Shakespeare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아무리 정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해도, economy of art on Jane Austen만큼 도달할 수 있는 작가는 드물 것이다. 그녀의 묘사는 특별히 독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거나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아닌데 독자의 흥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은 없다. 행동이 시작되면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느끼고 움직인다. 독자가 Elizabeth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고 그녀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위대하거나, 특별한 성격과 소유자이거나 기발한 행동이나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은 아니다. 그녀가 자기 주위를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인으로서의 소박한 느낌과 날카로운 판단력, 인간적인 결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

Jane Austen 자신도 Cassandr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Eliza-

6) G.H. Lewes, op cit. p. 326.

7) Ricahrd Whately, “Northanger Abby and Persuasion; Quarterly Review (Jan., 1821) quoted in Judith O’neill(ed), op. cit.; p. 5

8) Thomas B. Macaulay, “Diary and Letters of Madam D’Aoblay,” Edinburgh Review (Jan. 1843), quoted in Judith O’neil(ed); bid., p. 6.

9) Rachel Trickett, “Jane Austen’s comedy and the Nineteenth century.” Critical Essays on Jane Austen, ed. B.C. Southern, p. 180.

beth를 가장 좋아 한다고 말했다.

... I must confess that I think (Elizabeth) as delightful a creature as ever appeared in print, how I shall be able to tolerate those who do not like her at least I do not know ...¹⁰⁾

그녀의 wit는 저자의 것보다 더 날카로우며, 그녀의 판단도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등장 인물 거의가 정중한 예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녀만은 개성적인 여인의 태도를 보인다. 그 일례도 모든 인물들이 Lady Catherine에 압도되어 동요하고 있을 때 Elizabeth는 "And is this all? I expected at least that the pigo were got into the garden, and here is nothing but Lady Catherine and her daughter!" (II-5)라고 당당히 말함으로서 Lady Catherine의 출현에 조금도 놀라지 않으며 또한 거만한 Lady Catherine의 질문 공세에도 친구처럼 농담으로 받아 넘김으로서 오히려 Lady Catherine을 어리 동결하게 하는 것이다.

"Upon my word" said her ladyship, "your give you opinion very decidedly for so young a person. —pray, what is your age?"

"With three younger sisters grown up," replied Elizabeth smiling, "your ladyship can hardly expect me to own it."

Lady Catherine seemed quite astonished at not receiving a direct answer; and Elizabeth suspected herself to be the first creature who had never dared to trifle with so much dignified impertinence. (II-6)

자기 집의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Collins의 청혼을 거절한 사실, 1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Darcy의 청혼을 거절한 사실, 그리고 Jane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친구인 Charlotte를 위해 깨우쳐 주려는 점들은 독자로 하여금 Elizabeth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Darcy의 진실한 인간성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몰지각함을 탓하는 그녀의 태도에 우리는 반한다.

"How despicably have I acted!" She cried—"I, who have prided myself on my abilities! Who have often disdained the generous candour of my sister, and gratified my vanity, in useless or blameable distrust. —How humiliating is this discovery! —Yet, how just a humiliation! Had I been love, I could not have been more wretchedly blind. But vanity, not love, has been my folly. (II-3)

우리의 관심은 Elizabeth처럼 진지한 성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Collins나 Mrs. Bennet, 그리고 Lady Catherine 에도 주어진다.

이 세사람은 *Pride and Prejudice*에서 훌륭한 바보이며 Comedian들이다.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Pride and Prejuice*의 이야기가 빛나며 싫증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중 Collins는 가장 분명하고 Original한 모습의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의해 부종이라는 클레속에서 자라고 뜻밖에도 Catherine de Bourgh를 만나 일찍 출세함으로써 비굴과 야심, 그리고 오만과 자존심이 혼합되어 복합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 우선 그의 결

10) "Letter to her sister Cassandra," (Jan. 29, 1813) quoted in Judith O'Neill(ed.) op. cit., p. 1.

혼판은 아주 단순하다. 첫째 자기가 목사인 이상 목사는 누구나 그 교구에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둘째는 자기의 행복에 보탬이 됨으로, 셋째는 Catherine de Bourgh가 원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상대는 누구이든 상관없다. 처음에는 Jane에게 청혼하려 했으나 Mrs. Bennet의 귀찮음으로 Elizabeth에게 청혼하고 그녀에게 거절당하자 간단히 Charlotte Lucas에게 옮겨가고 만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결혼이란 성년된 남자로서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여자측인 Charlotte Lucas의 생각도 거의 비슷한 것이어서 서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그녀 역시 남자가 적당한 지위와 상당한 돈만 있으면 상대가 누구때도 좋았다. Elizabeth 판단에 의하면 Mr. Collins의 어리석음과 Charlotte의 지성은 어울릴 수 없는 반대의 것이었으므로 이 두 사람이 반대요소를 이겨내고, 서로 합해질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Charlotte Lucas에게 성격이나 지성은 결코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었다. Charlotte에 의하면 서로를 잘 알고 또 성격이 비슷한대가 있다고 해서 결혼한 두 사람의 행복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녀에게는 결혼의 상대를 아는 데 나을 저녁이면 충분했다. 결혼은 인연과 기회의 문제이고 그녀는 Collins에서 최적의 기회를 발견했을 뿐이다.

"I am not romantic you know, I never was, I ask only a comfortable home ; and considering Mr. Collins's character, connections and situation in life, I am conunced that my chance of happiness with him is as fair, as most people can boast on entering the marriage state." (1-22)

이렇게 Charlotte는 평소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개념대로 간단히 Collins를 택하고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외부로부터 눈과 귀를 막아 버렸던 것이다. Collins의 등장만 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meryton에 있는 Mrs. Phillip의 야외에서 새로이 등장한 Wickam이라는 인물에 의해 빛을 잃고 자기의 집이 있는 Hunsford에서는 손님인 Elizabeth와 Darcy Fitzwilliam 그리고 Lady Catherine의 배경속에 묻혀버리고 그 후에는 편지로만 두번 즉 Lydia의 타락에 대한 훈계와 위안 편지 그리고 Darcy와 Elizabeth와의 결혼에 대한 경고 편지에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고 작품에서 그의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Collins의 첫 출현이 마치 Vol 1의 Chapter 1에서 Bingley의 경우 처럼 요란스러운 것으로 보아서 작가의 그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는 딱딱하고, 질서정연한 그리고 이성적인 *Pride and Prejudice*에 바보 같은 웃음을 먼저 줌으로써 독자의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Dickens 적 웃음과 Shakespeare적 희극적 요소를 부여한 것이다. 그의 알뜰한 자존심과 봉사 정신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을 낮추고 타인의 소유물을 칭찬하므로써 자신을 과시하는 겸손 텅빈 지식과 우스꽝스러운 비굴감,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등은 독자들에게 호뭇한 웃음과 Satire를 제공한다.

이러한 면 외에도 Collins는 plot의 진전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첫째 그는 Longbourn과 Rosings 즉 Bennet 가족과 Lady Catherine 나아가서 Elizabeth와 Darcy 사이의 교량적 존재다. 그는 Darcy가 Bingley와 함께 떠나버린 후 Elizabeth가 Darcy와 재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인물이다. Elizabeth가 William Lucas와 함께 3월에 여행한 곳은 바로 Collins 집이 있는 Hunsford였고 그 곳에서 그녀는 6주일간을 머물면서 Darcy로부터 사

량을 고백받고 그를 다시 평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 Collins는 Elizabeth와 Darcy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시킨 사건의 장본인이다. Vol III Chapter 14에서 갑자기 Mrs. Bennet를 방문한 Lady Catherine이 Collins 부부의 안부를 묻는 Mrs. Bennet에게 그들은 그저께 밤 (The night before last)에 보았다고 말하고 그녀가 Darcy와의 문제로 Elizabeth를 공박할 때 이틀 전 (two days ago)에 자기가 놀라운 보고를 받았다고 말 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the night before last와 two days ago란 말의 상관관계로 Darcy와 Elizabeth의 연애의 가능성을 다른 사람 아닌 Collins가 Lady Catherine에게 보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야기된 Lady Catherine의 분노는 그녀로 하여금 Elizabeth를 직접 방문하도록 자극 했으며 이 두 여인의 거절은 회담은 Darcy와 Elizabeth의 사이를 극적으로 결함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Collins의 다른 중요성은 독자로 하여금 Elizabeth에 향한 회극적 구혼 장면도 Elizabeth가 하찮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의 소신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을 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또한 그녀의 판단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VII-1)

“My dear Jane, Mr. Collins is a conceited, pompous, narrow-minded, silly man; you know he is, as well as I do; and you must feel, as well as I do, that the woman who marries him cannot have a proper way of thinking. You shall not defend her, though it is Charlotte Lucas. You shall not for the sake of one individual, change the meaning of principle and integrity, nor endeavour to persuade yourself or me that selfishness is prudence, and insensibility of danger, security for happiness.”

Collins와 성격은 다르나 똑같이 회극적인 인물에 Lady Catherine이 있다. Lady Catherine은 Darcy의 친척이며 나아가서 Elizabeth의 시어머니가 될 인물이나 독자에게는 자존심이 높고 거만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여인에 불과하다. 그녀가 회극적인 이유는 자신에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중요성과 작품에 실제로 미치고 있는 영향과의 부조화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권위를 타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Mudrick는 Lady Catherine이 comic figure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ady Catherine is a purely comic figure, not because she is not potentially powerful and dangerous in the authority that rank and wealth confer upon her, but because she is easily known for what she is and because the lovers are in a position—Percy by his own rank and wealth, Elizabeth by her spirit and intelligence—to deny her power altogether”¹¹⁾

그녀는 고귀한 신분이지만, 고귀한 면은 없고, 권위를 부리나 실제 권위는 없다. 그녀가 Elizabeth 앞에서 위엄을 부리려 했으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만을 가져 왔을 뿐이다. 독자는 이와같이 권위 있는 자의 우스꽝스런 모습에 자기 만족을 느끼고 우월감을 가짐으로서 작품을 즐겁게 대한다. Lady Catherine이 Collins 만큼 뚜렷한 존재이기는 하나 그 보다는 작품상으로 덜 유용한 인물이다. Plot 면에서 그녀는 Darcy의 결혼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급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 이외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Darcy에게 roman-

11) Marvin Mudrick, “Irony as Discrimination: *Pride and Prejudice*” quoted in Donald J Gray(ed). *Pride and Prejudice*, p. 394.

tic한 면을 부여 했고 Darcy의 친척임으로써 그의 부와 고귀함도 독자의 주위를 환시시켰다. 동시에 Darcy와 그의 가계, Elizabeth와 그녀의 가계를 한층 가깝게한 간접적 인물이다. 왜냐하면 Darcy의 아주머니란 사람의 인품이 Elizabeth 친척들의 인품과 비교해서 별로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극적이고 Dickens적인 인물에 또 Mrs. Bennet를 들 수 있다. 그녀는 Mrs. Micawber 처럼 나타나자마자 성격이 한정되어 버린다. 남편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Mrs. Micawber 처럼 Mrs. Bennet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신념에 가득 차있다. 덧붙일 수 있는 그녀의 fixed idea(고정관념)은 딸들이 남편의 재산을 이어받을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가 약한 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그녀의 모습이나 기능은 오직 fixed idea로 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일단 한 인물이 simple character로 결정된다면 그는 언제나 fixed character가 되고, 독자는 이후의 그 사람의 행동에 놀라지 않는다.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은 행동할 뿐이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Collins가 편지로 처음 소개 되었을 때 Mrs. Bennet는 상속 문제라는 fixed idea 때문에 Collins에게 분노와 적의감을 품었었다. 그러나 편지 내용에 자기의 딸들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알고 부터는 즉시 태도가 달라진다.

There is some sense in what he says about the girls, however ; and if he is disposed to make them any amends, I shall not be the person to discourage him." (VOL I-14)

이리하여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즉 fixed idea인 청혼자나 재산의 점유자나에 그녀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 Darcy에 대한 그녀의 적의감도 자기의 딸들중 아무도 그와 결혼할 것 같지 않기에 생겨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적의감은 Elizabeth가 Darcy와의 결혼을 선언할때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정도 기간 동안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앞으로도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증오심이 있다. 그러나 Mrs. Bennet에게 사람의 가치 척도는 자기의 fixed idea 즉 딸과 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변한다. Mrs. Bennet가 Elizabeth에게서 Darcy와의 결혼의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들은 것을 이해 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이 사실이 자기 가족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둔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Mrs. Bennet는 신의 축복을 빌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VOL III-17)

"Good gracious! Lord bless me! only think! dear me! Mr. Darcy! Who would have thought it! And is it really true? Oh my sweetest Lizzy! how rich and how great you will be! What pin-money, what jewels, what carriages you will have! Jane is nothing to it--nothing at all. I am so pleased--so happy. Such a charming man! -- so handsome! so tall! --Oh, my dear Lizzy! pray apologize for my having disliked him so much before, I hope he will overlook it. Dear Lizzy. A house in town! Everything that is charming! Three daughters married! Ten thousand a year! Oh, Lord! What will become of me, I shall go distracted."

우리가 Jane Austen 대해 말할 때는 항상 irony와 그녀의 뛰어난 dialogue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성격묘사를 서술적으로 하지 않고 dialogue를 통해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등장인물들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직접 알게 되고 우리가 마치 그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각 인물의 쓰여진 대사는 그 사람이 말해야 할 바로 그 말 뿐이고 다른 말이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리 짧고 단순한 말이라 하더라도 말하여진 모든 것은 바로 그 말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효과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해야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뿐이다. Jane이 Netherfield에 놀러 갔다가 잠기에 걸렸다는 편지를 받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를 살펴 보자.

(Vol 1-7)

"Well, my dear," said Mr. Bennet, when Elizabeth had read the note aloud, "if your daughter should have a dangerous fit of illness, if she should die, it would be a comfort to know that it was all in pursuit of Mr. Bingley, and under your orders."

"Oh! I am not at all afraid of her dying. People do not die of little trifling colds. She will be taken good care of. As long as she stays there, it is all very well. I would go and see her, if I could have the carriage."

Elizabeth, feeling really anxious, was determined to go to her, though the carriage was not to be had; and as she was no horsewoman, walking was her only alternative. She declared her resolution.

"How can you be so silly," cried her mother, "as to think of such a thing in all this dirt! You will not be fit to be seen when you get there."

"I shall be very fit to see Jane—which is all I want."

"Is this a hint to me, Lizzy," said her father. "To send for the horses?"

"No, indeed. I do not wish to avoid the walk. The distance is nothing, when one has a motive; only three miles, I shall be back by dinner."

"I admire the activity of your benevolence," observed Mary, "but every impulse of feeling should be guided by reason; and, in my opinion, exertion should always be in proportion to what is required."

"We will go as far as Meryton with you," said Catherine and Lydia. Elizabeth accepted their company, and the three young ladies set off together.

"If we make haste," said Lydia, as they walked along, "perhaps we may see something of Captain Carter before he goes."

여기에는 Mr. Bennet의 풍차, Mrs. Bennet의 Bingley에 대한 관심, 동기만 옳다면 타인의 비판 여하를 초월할 수 있다는 Elizabeth의 성격, Mary의 철학적인 면과 Catherine, Lydia의 바람기 등이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모든 대사가 꼭 각자 그 인물이 말해야 할 어울리는 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Elizabeth가 Darcy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 대화 역시 irony를 섞어가며 기술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처음 Darcy가 Elizabeth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계속 기지있는 처녀의 성질답게 ironic dialogue의 애매성을 드러내다가 Darcy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즈음에는 그녀의 대화에는 irony는 사라지고 부드럽고 예의바르게 된다. Elizabeth가 “Mr Darcy is all politeness”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ironic dialogue이다. 즉 Elizabeth 의해 판단된 예절이란 사실은 찬사가 아니라 신랄한 조롱인 것이다. 그녀가 Darcy에 미소짓는 것도 “arcbly”하게 미소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Elizabeth의 irony는 Darcy의 성격 변화가 오고 Elizabeth 태도 변화가 움에 따라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진지한 감정의 변화를 대화로서 그리고 순수한 irony 사용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Reuben A Brower는 Shakespeare가 겨우 이러한 작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The triumph of *Pride and Prejudice* is a rare one, just because it is so difficult to balance a purely ironic vision with credible presentation of a man and woman undergoing a series “Change of sentiment.” “Shakespeare achieves an uneasy success in much about nothing and...”¹²⁾

또 한가지 *Pride and Prejudice*의 특징의 하나는 작품의 한계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3가지 면에서 작품의 한계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시간이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이외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과거나 미래는 나타나지 않고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공간은 London과 Longbourn이라는 좁은 읍, 그리고 몇시간 동안 마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산도 넓지 않고, 바다도, 강도 건너지 않는다.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도 거의 비슷한 곳에서만 사건이 진행된다.

셋째 사회적 환경 조차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등장 인물의 신분이나 빈부의 차도 그리 심하지 않는 시골의 평범한 인물이다. 여기에는 궁전사회도, 귀족사회도, 그렇다고 빈민사회도, 범죄사회도 등장하지 않는다. 전쟁도 없고, 산업혁명도 없고, 정치적 변화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성을 저자의 전문이 좁은 탓으로 돌림으로서 작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철저한 주제의식, 치밀한 구성, 사실적인 성격묘사등으로 추리한다면 이러한 한계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작가의 고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Austen이 평생을 처녀로 보냈으며 많은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하지만 활동이 여러 방면에 펼쳐 있는 수많은 친척들이 주위에 있었다. 그녀가 4년간이나 살았던 bath는 굉장한 사교 도시였으며 Southampton은 해운 기지였고, 그녀의 다섯 오빠는 여러 지역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으며 단두대에서 죽음을 당한 사촌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작품의 세계에 한계성을 부여한 것은 그녀의 좁은 전문 탓이 아니고, 소설의 주제와 형태, 그리고 의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택한 것이다. 좁은 무대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은 작자가 완전한 인물들이다.

Elizabeth가 London의 혼잡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며 Collins를 장엄한

12) Reuben A. Brower, *Light and Bright and Sparkling: Irony and Fiction in Pride and Prejudice* quoted in Donald J. Gray(ed), *Pride and Prejudice*, p. 388.

Canterbury에 데리고 갈 수도 없다. Mr. Bennet을 도서실 밖으로 끌어 낸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으며 Darcy를 화려한 사교계로 등장 시킬 수도 없다.

*Pride and Prejudice*에는 이외에 다른 면이 있을 수 없도록 짜여져 있고 완성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소설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